

## 번역을 통해 본 근대중국\*

— 林紓의 서양소설번역을 중심으로 —

金素貞\*\*

<目次>

I. 들어가며	1. 의식의 계몽
II. 林紓의 정치적 성향과 번역 활동	2. 尙武정신과 冒險정신의 고취 3. 애국심 고취
III. 林紓의 번역기획	IV. 나가며

### I. 들어가며

중국에 있어 근대는 西學이 수입되면서 중국의 전통적 질서에 균열이 생겨나고 새로운 근대적 패러다임을 모색해가는 격동의 전환기였다. 西學이 중국에 수입되는 과정에서 서적은 중국인이 서양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통로였으며, 그것은 번역이라는 방식을 통해 가능했다. 근대중국에서 서양 서적의 번역은 대개 의화단사건(1900年)을 전후로 하여 번역의 주체와 번역대상서적의 특성이 변화한다. 전자는 양무운동시기의 번역으로 서양의 강력한 군사와 과학기술의 학습에 중점을 두어 자연과학, 응용과학, 지리학, 사회과학 방면의 서적을 대량 번역하였다.<sup>1)</sup> 번역을 주도한 주체는 주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61-AM0059)

\*\* 부산대학교 점필재연구소 HK연구교수

1) 1850년에서 1899년간 번역된 서양서적은 모두 567권이며 그 중 응용과학이 40.6%, 자연과학이 29.8%, 역사와 지리학이 10%, 사회학이 8.1%를 차지했다.

로 淸 왕실이 개설한 번역기구와 서양인들의 교회계통이었으며<sup>2)</sup> 그 방식은 서양인과 중국인의 합작에 의해 진행되었다. 양무운동시기만 하더라도 외국어에 능통한 중국인이 드물었기 때문에 서양인이 해당 외국어를 낮은 수준의 중국어로 풀어 설명해주면 중국인이 그것을 듣고 유창한 중국어로 운색하고 가공하는 ‘西譯中述’ 방식을 취했다. 양무운동시기의 번역은 中學을 體로 삼고 西學을 用으로 삼는 ‘中體西用’을 기본방침으로 했기에 西學은 中學을 보조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 中學의 ‘中’은 ‘中國’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中心’과 ‘中央’의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sup>3)</sup>

번역계의 이런 경향은 1895년 淸日戰爭에서 ‘동방의 키 작은 오랑캐들(倭人)’에 당한 패전으로 새로운 전환점의 계기를 맞게 된다. 청 왕실의 주도로 30년 넘게 진행해온 양무운동에 대해 회의하는 풍조가 만연하기 시작하여 1900년 이후 서학번역의 내용과 방식에서 현저한 변화가 발생했다. 내용면에서는 기술과 제도 등의 물질문화 방면에 치중했던 경향에서 사상과 학술 등의 정신문화로 옮겨가면서 서양의 근대적 사상과 개념을 수입하여 중국의 병폐를 고쳐나가려는 노력이 전개되었다. 또한 일본에서 활동한 근대적 지식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서양서의 직접적인 번역과 함께 일본에서 번역된 서양서를 중국어로 다시 번역해 들여오는 방식이 새롭게 성행하기 시작했다.<sup>4)</sup> 이 시기 번역에 대한 가장 큰 기대는 서

그 중 철학과 문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기 1.8%와 0.5% 정도로 미미했다. (Tsuen-hsuei Tsien(1954), 표 III 참고)

- 2) 총리아문의 동문관 및 경사동문관과 강남제조국의 번역관 등.
- 3) 晚淸시기 중국에서 ‘西學’이라는 단어의 원류를 고찰해 보면 그것은 中學과 대등한 관계에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본래 ‘西學’이라는 용어는 명말청초 시기에 출현하였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서양에서 온 문화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성장하지 않았었고 대신 ‘夷學’이라는 단어가 훨씬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2차 아편전쟁 후, 서구열강과 맺은 天津條約(1858년)에서 서양을 ‘夷’로 칭하는 것이 금지됨에 따라 西學은 서방문화를 칭하는 단어로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양무운동 이전까지 西學의 의미 저변에는 ‘夷學’이라는 폄하의 시선이 내재되어 있었으며 이는 이후에도 한동안 그러했다.
- 4) 熊月之(《西學東漸與晚淸社會》, 1994)의 통계에 따르면, 1900~1911년 동안

양의 근대적 사유개념과 패러다임의 수입을 통해 국민을 계몽시켜 부강한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다.<sup>5)</sup> 특히 유신과의 대표인 강유위와 양계초는 서구와 일본의 근대화과정에서 소설이 지녔던 사회개량적 기능에 주목하기 시작<sup>6)</sup>하면서 중국에서 소설의 번역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1897년 嚴復과 夏曾佑는 <《國聞報》附印說部緣起>에서 “구미와 일본은 개화기 때 종종 소설의 도움을 받았다고 들었다. 고생을 마다 않고 널리 자료를 모아 신문 부록으로 끼워 나누어 돌린다. 때로는 여러 선진국의 것을 번역하고 때로는 세상에 하나 밖에 없는 孤本의 세세한 것을 번역한다<sup>7)</sup>”라고 하여 서양소설의 번역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이처럼 만청시기 서양소설의 번역은 국민의 계몽과 정치혁신에 기여해야 한다는 이론적 주장 아래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20세기에 막 진입하자 번역소설은 수량 면에서 급격히 증가하여, 阿英의 통계에 근거하면 “晚淸 시기에 1000부가 넘는 소설이 출판되었는데 그 중 3분의 2가 번역작품이었다<sup>8)</sup>”고 한다. 그리고 일본 학자 樽本照雄은 最新 編訂한 《清末民初小說目錄》에서 창작 소설은 479부, 번역소설은 628부로 확정된 바 있다. 이 밖에, 陳平原은 1899년에서 1911년까지 모두 615부 외국작품의 중역본이 탄생했다고 한다.<sup>9)</sup> 그 중, 디킨스, 알렉산드르 뒤마父子, 위고, 톨스토이의 작품은 독자들의 광범위한 사랑을 받았으며, 코난 도일, 헤거트와 쥘 베른의 작품들은 베스트셀러 3위안에 들었다고 한다.<sup>10)</sup> 이 시기 서양의 소설작품을 번역하

번역된 서양서적은 대략 1,599권으로, 이전 시기의 3배 정도에 이른다.(張琬渝 외(2002)에서 재인용)

- 5) 양계초는 《論譯書》에서, “지금의 천하는 반드시 번역서로써 나라를 강성하게 할 것을 첫 번째 뜻으로 삼아야 한다. (處今日之天下, 卽必以譯書爲強國第一意.)”라고 주장했다.
- 6) 1897년 康有爲의 《日本書目志》의 識語와 《時務報》에 연재된 梁啓超의 《變法通議·論幼學》 참고.
- 7) “且聞歐美東瀛, 其開化之時, 往往得小說之助. 是以不憚辛勤, 廣爲採輯, 附紙分送. 或譯諸大瀛之外, 或扶其孤本之微.”
- 8) 阿英, 《晚淸小說史》 pp.1-2.
- 9) 陳平原, 《陳平原小說史論集》 p.630 참고.
- 10) 陳平原, 《陳平原小說史論集》 p.631 참고.

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번역가로는 단연 林紘를 꼽을 수 있다.

1980년대 이래로 서구의 번역학에서 흥기한 문화중심적 번역이론은 번역을 단순한 정보의 전달이라는 차원에서 탈피하여 두 문화를 소통시키고 매개하는 교량으로서 파악한다. 이는 이전의 언어중심적, 원전중심적 번역 연구에 대한 반동으로 일어난 것으로 번역이 행해지는 역사적, 공간적 상황을 매우 중시한다. 번역은 도착언어의 상황에 따라 그 목적과 기능이 결정되기 때문에 성공한 번역을 가르는 기준은 번역본이 본래의 번역목적과 기능을 제대로 구현했는가에 있다. 이러한 문화중심적 번역이론은 근대시기 중국에서 서양소설을 가장 많이 번역한 임서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평가를 내릴 수 있는 이론적 준거점을 제공한다.

임서는 서양 텍스트가 지닌 문화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지니지 못하고 외국어도 몰랐으나 僞譯者로 함께 일한 구술자들의 서양문화에 대한 지식에 의지하여 서양문화를 이해했다. 그는 애당초 번역을 통해 국민의 의식을 각성시키고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중국적 경험을 바탕으로 서양소설을 번역했기 때문에 서양문화의 본질과 특수성이 완벽하게 전달되지 않고 중국적으로 변용되었다. 본고에서는 서양의 근대적 가치관이 임서의 번역의도 아래에서 어떻게 이용되고 변용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林紘는 독자의 반응을 자신이 해석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번역소설의 앞에 序를 적어 넣었다.<sup>11)</sup> 이 문장들은 그의 번역기획과 문화적 입장을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본고는 이를 기본 텍스트로 삼기로 한다.

11) 林譯小說의 序와 跋文은 신해혁명을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한다. 신해혁명 이전에 출판된 70여개의 번역작품 중 10여개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林紘의 성실한 序跋이 기록되어 있다.

## II. 林紘의 정치적 성향과 번역 활동

林紘(1852~1924)는 어려서부터 유가경전을 공부하여 과거를 통한 입신양명에 몰두했던 전형적인 중국의 전통 유학자였다. 그는 5살(1856년)부터 《孝經》을 읽기 시작했으며, 10살(1861년) 무렵부터는 《尙書》, 《左傳》, 《史記》 등을 공부했다. 17세에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아버지를 따라 대만에 장사하러 가서 장부기록을 맡아보기도 하는 등 굴곡있는 삶을 살았다. 1882년 31세에 舉人이 된 후, 과거시험의 마지막 관문인 進士에 합격하기 위해 47세(1898년)까지 과거시험에 도전했으나 끝내 뜻을 이루지 못했다.<sup>12)</sup> 무술변법 시기, 그는 청 왕실을 옹호하면서 입헌군주제를 주장했던 유신파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조국의 앞날을 걱정하는 애국지사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1898년 5월 무술변법의 분위기가 한창 고조되었을 때, 마침 과거응시를 위해 북경에 와 있던 임서는 친구 高鳳岐 등과 함께 清代의 도찰원인 御史臺에 가서 상서를 올렸다. 이 상서에서 그들은 독일이 膠州灣을 점령한데 대해 항의하고 임금이 스스로를 성찰하는 조서(罪己詔)를 내려 당시의 애국적 지식인들의 마음을 달래고 격려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그들은 籌餉, 練兵, 外交, 內治 등으로 네 항목으로 구성된 책략을 덧붙여 제출함으로써 조정에서 채택되길 바랐다.<sup>13)</sup> 그러나 이 조서는 만청시기 官界의 부패로 인해 황제에게 전달되지 못한 채 폐기되었다. 이 사건으로 낙심한 임서는 즉시 북경을 떠나 남쪽 항주로 향하는 배에 올랐다. 이러한 정치적 활동 이외에도 그를 維新派 지식인으로 판단할 수 있는 단서는 번역방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錢鍾書가 쓴 <林紘的翻譯>에 따르면, 1913년 이후로 번역된 작품은 대체로 이전시기에 비해 문학성이 떨어진다고 한다. 이전 작품에는 강한 애국심과 의지가 들어 있었

12) 字는 琴南, 號는 畏廬 또는 冷紅生이며 福建閩侯(지금의 福州) 사람이다. 시와 그림에 능했으며, 고문창작과 산문이론에도 조예가 깊었다.

13) 《林紘評傳》 p.65 참고.

는데, 신해혁명 이후로는 그의 정치적 이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자 소설 번역을 단지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이다.<sup>14)</sup>

유신과 애국지사로서의 정치적 경향은 그의 번역방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최초의 번역작품인 《巴黎茶花女遺事(La Traviata, 춘희)》를 1899년 간행<sup>15)</sup>하기 전부터 그는 번역에 있어서 명확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었다.

“또 듣기를 선생께서는 중국 백성의 지혜를 밝히고자 하는 지론을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다. 그 방법은 정치사상에 관련된 소설을 많이 번역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하여 친구인 魏君(魏易)、王君(王壽昌)과 함께 프랑스의 나폴레옹 1세와 독일의 재상 비스마르크전을 택하여 번역을 시작했으나 아직 원고가 완성되지 않았을 즈음 뜻밖에 《茶花女遺事》가 오히려 먼저 책으로 간행되었으니 이는 선생의 뜻이 아니었다.”<sup>16)</sup>

사실, 林紓는 양계초가 新小說을 주창한 것(1898년)보다 앞서 民智를 계발시킬 수 있는 유효한 방법으로 외국소설 번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1897년 이전에 이미 서양정치소설을 번역하여 民智를 계발

14) “癸丑三月(民國二年)譯完的《離恨天》算得前後兩期之間的界標。在它以前,林譯十之七八都很醒目,在它以後,譯筆逐漸退步,色彩枯暗,勁頭松懈,使讀者厭倦…… 后期翻譯所產生的印象是,一个困倦的老人機械地以疲乏的手指驅使着退了鋒的秃筆,要達到“一時千言”的指標。他對所譯的作品不再欣賞,也不甚感覺興趣,除非是博取稿費的興趣。換句話說,這種翻譯只是林紓的“造幣廠”承應的一項賣買,形式上是把外文作品轉變為中文作品,而實質上等于把外國貨色轉變為中國貨幣。” 錢鍾書,〈林紓的翻譯〉。

15) 《巴黎茶花女遺事》를 번역한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견해가 분분하다. 모두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阿英은 1898년이라 하였고, 楊蔭深은 1897년, 錢鍾書는 1896~1897년 사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것의 출판시기는 1899년 1월이다. 오순방(2008), p.86에서 재인용.

16) “又聞先生宿昔持論,謂欲開中國之民智,道在多譯有關政治思想之小說始,故嘗與通譯友人魏君王君,取法皇拿破侖第一德相俾士麥克全傳屬稿,草創未定,而《茶花女遺事》反於無意中得先成書,非先生志也。”(邱焯葵,《客雲廬小說話》卷三〈揮塵拾遺茶花女遺事〉,《晚清文學叢鈔》卷四에서 인용.)

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었고<sup>17)</sup>, 수시로 다른 사람의 번역본을 구해 읽었으며 船政學堂에 가서 서양언어를 아는 중국인과 중국어를 아는 서양인들로부터 번역할 때의 어려움 등을 경청했다. 1901년 林紆는 《譯林》序에서 말하길, “民智를 열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당을 세워야 하는데 학당의 공적은 완만하여 會를 설립하여 연설을 하는 것만 못하다. 연설은 또 쉽게 개최하기가 어려우므로 결국엔 오직 책을 번역하는 방법 뿐이다.”<sup>18)</sup> 林紆는 民智를 개발시키고 의식을 계몽시켜 망해가는 나라를 구하고자 외국 문학의 번역에 종사하였다.

백성의 지혜를 밝혀 궁극적으로는 중국을 부강한 국가로 만들기 위해 번역활동을 시작했기에 내용의 실질적인 번역에 있어서 임서는 자국의 이념들로 굴절된 의미를 전달하였다. 임서는 중국 지식인들의 언어인 고문으로 서양소설을 번역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많은 유가적 개념 용어들이 번역어로 채택되었다. 그로 인해 서구열강들이 근대화과정에서 관철시켜왔던 서구중심적 논리는 중국 전통의 유가개념의 틀 속에서 이해되고 해석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가장 흥행한 번역소설의 하나인 《巴黎茶花女遺事》의 경우<sup>19)</sup>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임서가 이 작품을 높이 평가한 이유는 중국유교사상의 ‘忠’을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를 통해 매우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나는 마르크리트를 번역하면서 그의 “忠”을 극진히 진술했다’<sup>20)</sup>라고 하면서, 그는 이 작품의 여자 주인공

17) 《林紆評傳》 p.61, 참고.

18) “欲開民智，必立學堂，學堂功緩，不如立會演說，演說又不易舉，終之唯有譯書。” (《譯林·序》1901年) (陳平原 外, 《二十世紀中國小說理論資料(第一卷)》에서 인용.)

19) 《巴黎茶花女遺事》는 1899년 福州에서 간행되었는데 즉시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았다. 당시 上海 《時務報》 사장 汪康年이 이 책을 보고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林紆의 동의를 얻어 素隱書屋의 명의로 재판했다. 이리하여 이 작품은 더욱 광범위하게 전파되었으며, 이 작품의 독자였던 嚴復은 ‘가련한 《茶花女》 한 권이 중국 蕩子의 창자를 다 끊어버리네’라고 당시의 감동을 시로 표현했다.

20) “余譯馬克，極狀馬克之忠。” 《露漱格蘭小傳》序

인 고급 창녀 마르크리트의 애정을 중국 고대의 忠臣인 龍逢과 比干의 忠과 동일하게 취급했다.

“나는 《茶花女遺事》를 번역하면서 붓을 내려놓고 눈물을 흘린 적이 수없이 많았다. 천하 여인의 性情은 남자보다 강하다고 여겨진다. 남자 중에는 龍逢과 比干 같이 지극한 忠義를 가지고 수백 번 죽을지라도 결코 뜻을 굽히지 않았던 자들만이 마르크리트에 비견할 수 있다. 마르크리트가 아르망을 섬겼던 것처럼, 龍逢과 比干도 桀과 紂를 섬겼고, 桀과 紂는 龍逢과 比干을 죽였으나 龍逢과 比干은 후회하지 않았다. 아르망이 마르크리트를 죽였다고 마르크리트가 어찌 후회함이 있었겠는가? 그렇기에 세상에서 반드시 龍逢과 比干 같은 자만이 마르크리트에 비견할 수 있다고 나는 말한다.”<sup>21)</sup>

당시 청 왕실을 보위하면서 중국의 개혁을 주장했던 維新派 지식인으로서 林紘의 정치적 견해에 입각한다면 《茶花女遺事》를 통해 강조하고자 한 ‘忠’은 淸 왕실에 대한 충성심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담은 소설을 번역할 때 이 과정에서 유가적 색채를 담은 해석이 가해졌다. 林紘는 서양 원작에 나타난 부모와 자녀간의 평범한 사랑을 중국유가윤리의 흔적을 지니는 단어인 “忠”와 “孝” 등으로 번역하였다. 예를 들면 찰스 디킨스의 *The Old Curiosity Shop* (골동품상점)을 《孝女耐兒傳(효녀 넬 傳)》으로, 해거드의 *Montezuma's Daughter* (몬테주마의 딸)를 《英孝子火山報仇錄(火山에 복수한 영국 효자 이야기)》로, 영국작가 머라이(David Christie Murray)의 *The Martyred Fool* (순교자)을 《雙孝子噴血酬恩記(두 명의 효자가 피를 뱉어내어 은혜를 갚은 이야기)》로, 미국의 볼드윈(James Mark Baldwin)

21) “余既譯《茶花女遺事》擲筆哭者三數，以爲天下女子性情，堅於士夫，而士夫中必若龍逢比干之摯忠極義，百死不可撓折，方足與馬克競。蓋馬克之事亞猛，卽龍比之事桀與紂，桀紂殺龍比而龍比不悔，則亞猛之殺馬克，馬克又安得悔？吾故曰：天下必若龍比者始足以競馬克。”《露漱格蘭小傳》序

의 *Dr. Johnson and His Father*(존슨박사와 그의 아버지)를 《孝子悔過(효자의 참회)》로 제목을 바꾸었다. 번역본의 제목에 ‘孝’를 넣었으나, 이것은 원작의 제목 혹은 주요테마가 아니었다. 일례로 《英孝子火山報仇錄》의 경우, 林紓는 유교적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작품이 효와 충을 함께 실천한 모범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했기에 제목에 孝子라는 단어를 넣어 바꾸었다. “忠과 孝의 道는 하나이다. 어머니의 적을 복수하여 孝를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조국이 당한 치욕을 복수함으로써 충성을 맹세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안다.”<sup>22)</sup> 《孝女耐兒傳》 역시 유교적 가치인 孝를 그린 모범적인 작품이라 생각하여 중국식으로 제목을 바꾸었다. 게다가 번역자는 孝라는 개념을 가지고 원문을 해석하여 원문에 보충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중국적 변용을 가했다. 1915년 그는 《鷹梯小豪傑》<sup>23)</sup>의 서문에서 말하길, “천하 어느 곳에 孝梯를 근본으로 삼아 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호걸이 있다면 비로소 그를 일러 진정한 호걸이라 칭할 수 있다.”<sup>24)</sup> 1918년, 《孝友鏡》<sup>25)</sup>을 번역할 때도 “이 작품은 …… 부모는 친근한 사랑을 행하고 딸은 孝를 행하니 인류의 모범이 되기에 족하다. 그리하여 제목을 《孝友鏡》이라 지었다. 이로써 우리 중국인을 각성시키고자 한다”<sup>26)</sup>라고 분명히 밝혔다. 즉 이 작품을 번역한 목적은 중국 독자로 하여금 서양에서도 효제 관념을 중시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일 때 그들의 효제관념도 함께 배워야 함을 강조했다. 1919년 3월 18일, 그는 《公言報》에 《致蔡鶴卿書》라는 문장을 발표하면서, “19년 동안 번역

22) “忠孝之道一也, 知行孝而復母仇, 則必知矢忠以報國恥.” 《英孝子火山報仇錄》序.

23) 원제는 *The Dove in the Eagle's Nest* 로 영국소설가 샤를로트 마리 영(Charlotte Mary Yonge, 1823~1901)의 1866년도 작품이다.

24) “天下安有豪杰能根于孝弟而發于事業者, 始謂之真豪杰.” 《晚清文學叢鈔》補遺에서 인용.

25) 원제는 *De arme edelman* 으로 Handrick Conscience(1812~1883)의 작품이다.

26) “此書 …… 父以友傳, 女以孝傳, 足爲人倫之鑑矣. 命曰《孝友鏡》, 亦以醒吾中國人.”

사업에 종사하여 123종 모두 1300만자의 번역서를 번역했는데 그 중五常에 어긋나는 것은 실로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sup>27)</sup>라고 토로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는 유가적 忠, 孝, 禮, 義 등의 도덕규범에 기초하여 서양의 문학작품을 이해하고 번역했음<sup>28)</sup>을 엿볼 수 있다.<sup>29)</sup>

林紘는 외국어를 몰랐기 때문에 외국어에 능통한 口述者가 들려주는 원작의 내용을 듣고서 기술했다. 1907년 林紘는 자신의 이러한 번역 방식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나는 서양 문자를 모르며 간신히 번역에 몸담고 있는 자로 두 세 명의 君子가 나를 위해 그 문장을 구술해주면 내 귀가 (그것을) 받아 손으로 쫓아갔으며 소리가 그치면 붓도 멈추었다. 매일 4시간 동안 6천자를 번역했다. 그 가운데 잘못된 부분이 매우 많으나 세상의 저명한 문인들께서 그 경솔함을 나무라지 않고 받아들여주니, 이는 나의 큰 행운이다.”<sup>30)</sup>

자신이 외국어를 모르는데다 매일 적은 시간으로 많은 양의 분량을 번역했기 때문에 오역이 적지 않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20명 정도의 合譯者<sup>31)</sup>의 口述에 의지한 번역방식을 통해 그토록 많은 작품을 번역해낼 수 있었던 것은 林紘가 천성적으로 문학적 영감이 뛰어났으며 원작에 대한 진실한 감동과 애정을 가지고 번역에 임하여 원작의 풍격을 그대로 살

27) “積十九年之筆述，成譯著一百二十三種，都一千二百萬言，實未見中有違忤五常之語。”

28) 林紘는 전통적인 유가적 관점을 굳게 고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양소설에서 그것에 위배되는 점이 출현할 경우 그것을 왜곡, 변용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黑奴籲天錄》에서 기독교 교리를 설명한 부분을 누락시킨다거나, 《巴黎茶花女遺事》에서 서술자의 기독교적 의식을 상세히 묘사한 부분을 삭제한 것을 통해서 발견된다.

29) <以“林譯小說”爲中心論林紘在文學轉型過程中的兩難抉擇>에서 인용.

30) “予不審西文，其勉強廁身於譯界者，恃二三君子爲余口述其詞，余耳受而手追之，聲已筆止，日區四小時，得文字六千言，其間疵謬百出，乃蒙海內名公不鄙穢其輕率而收之，此予之大幸也。”《孝女耐兒傳》序。《晚清文學叢鈔》卷三에서 인용.

31) 合譯者의 구체적 인물은 이보경, 《文과 노벨의 결혼: 근대중국의 소설이론 재편》 p.110의 주석 109 참조.

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1899년 최초의 번역소설 《巴黎茶花女遺事》가 간행된 이후, 1924년까지 25년 동안 林紓가 번역한 작품은 대략 181개(미간행본 18개 포함)에 이른다고 한다.<sup>32)</sup> 일반적인 통계에 의하면, 林紓가 번역한 소설은 영국 작품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프랑스, 미국 등의 순서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국, 프랑스, 미국, 러시아, 벨기에, 스위스, 그리스, 스페인, 노르웨이, 일본, 기타 등 11개 국가 98명 작가의 작품을 중국어로 번역했다고 한다.<sup>33)</sup>

<표 1><sup>34)</sup>

국가명	번역 작품 수	작가 이름
영국	105	59명, 디포, 스위프트, 스코트, 스티븐슨, 디킨스, 해거드, 코난 도일 등
프랑스	28	18명, 위고, 뒤마 부자, 발자크 등
미국	23	13명, 어빙, 스토우, 오 헨리 등
스위스	2	비스(Wyss)
러시아	11	톨스토이
벨기에	1	콘산스(Hendrick Conscience)
스페인	1	세르반테스
그리스	1	이솝
노르웨이	1	입센
일본	1	겐지로 토꾸토미(徳富健次郎)
국가명을 알 수 없는 작품	7	
합계	181	

32) 일본 학자 樽本照雄는 林琴南은 중국 근대 번역문학의 창시자로, 일생동안 200여종의 외국소설을 번역했다고 주장한다. (樽本照雄, 《林琴南冤獄—林譯莎士比亞和易卜生》 참고.)

33) 林紓가 번역한 작품 목록은 《林紓評傳》부록2 참고.

34) WanLong Gao, *Recasting Lin Shu A Cultural Approach to Literary Translation* (2003) p.10에서 인용.

### III. 林紓의 번역기획

최근 번역학 연구에서는 번역이 일어나는 맥락, 즉 문화적 측면을 강조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sup>35)</sup> 번역이론가인 로렌스 베누티의 견해에 따르면 번역이란 근본적으로 자민족 중심적인 활동이며 특히 문학 작품의 번역은 자국문화 속에서 자국의 취향들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선택된다고 한다.<sup>36)</sup> 이러한 번역의 본질적인 속성과 기능에 근거해 봤을 때, 하나의 문화체계에서 탄생한 텍스트가 다른 문화체계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목표문화에 의해 새로운 이미지가 창조되면서 강조점이 변환된다. 본 장에서는 임서가 서양소설을 번역해 들여오면서 중국적 토양에서 새로이 만들어내는 이미지와 강조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1. 의식의 계몽

林紓의 제자였던 朱羲胄는 스승이 생각했던 번역의 기본방침에 대해 평하길, “선생께서는 풍부한 열정을 타고났으며 (나라를 위한) 근심과 忠愛가 천성으로부터 비롯된 까닭에 …… 나라를 혁신하려는 뜻과 세상 사람들을 면려하려는 숨은 뜻을 감추고 있지 않은 것이 없다. 서양 사람의 문학을 표창하는 것은 그 여흥이다.”<sup>37)</sup> 이와 같이 임서는 특히 번역을 통해 중국인의 의식을 계몽하는데 주력했다. 그는 부강한 서양과 비교했을 때, 중국인의 문제점은 비굴하고 소극적이며 현실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바로 음양학에서 주장하는 陰陽의 상보적 수

35) 수잔바스넷 저, 김지원·이근희 옮김, 《번역학 이론과 실제》 p.13.

36) 로렌스 베누티 저, 임호경 옮김, 《번역의 윤리(The Scandals of Translation)》, p.26.

37) “先生生富熱情，憂悶忠愛，出自天性，故觸感輒發，……且無一不寓革新國，激勸世人之微意，而表章西人文學，又其餘興也。” 朱羲胄，〈林琴南先生學行譜記四種〉，(台灣：世界書局，1965).

평적 관계가 무너지고 陰에 해당하는 柔道가 기세를 얻고 반면에 陽剛의 기개가 쇠약해 버렸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중국은 溫柔와 인내, 中庸之德이 초래한 폐단으로 인해 국가의 부흥과 발전을 쉽게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한 임서는 중국 고전의 인물을 가져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 그 대표로 거론되었던 인물은 孔光과 婁師德, 그리고 蘇味道 등이다. 孔光(BC65~AD5)은 漢나라 成帝, 哀帝, 平帝 시기에 걸쳐 벼슬을 하였으면서도 왕망이 권력을 찬탈하자 침묵하고 저항하지 않아 관직을 그대로 유지하였던 인물이다. 婁師德은 당나라 무측천 시기의 재상으로, 그는 동생이 지방관리로 부임하려 갈 때 화내지 말고 일거리도 만들지 말며 다른 사람이 얼굴에 침을 뱉더라고 마르기를 기다려야 침을 뱉은 사람이 기뻐한다고 충고해주었다. 蘇味道는 唐나라 때 재상으로 있으면서 오직 아첨하는 것만을 일삼았다. 언젠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매사는 명백하게 해서는 안 되고 중간에 서서 모나지 않게 해야 한다’하여 ‘소모릉(蘇摸稜)’이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sup>38)</sup> 임서는 이들을 비난하길, “孔光이 (대궐 안) 온실(殿)에 (무슨 나무를 심었는지) 침묵한 것은 죽음을 두려워한 것이고, 師德이 얼굴에 침을 뱉어도 스스로 마르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수치스러움이 없는 것이니 결국에는 국가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sup>39)</sup> “蘇味道와 婁師德은 중국에서 가장 하등의 노예이다. 火氣가 모두 사라져 마치 죽은 사람처럼 시들했음은 물론이다.”<sup>40)</sup> 일신의 안일을 위해 비겁한 행동을 했던 고대의 인물을 거론하면서 중국인의 겸양, 인내 등의 정신에 비판을 가했다.

뿐만 아니라, 中庸의 가르침 역시 비판받았다. 임서는 중국의 중용의 가르침은 ‘功績을 만들어내는 것을 중시하지 않고 단지 과오만을 없게 하는

38) 《唐書 卷114》

39) “孔光不言溫室爲畏死, 師德唾面自乾爲無恥, 究於國家尺寸不能益也.” 《埃司蘭情俠傳》序

40) “蘇味道婁師德, 中國至下之奴才也, 火氣全泯, 槁然如死人無論矣.” 《鬼山狼俠傳》敘

데 치중하고 있다<sup>41)</sup>고 비난하면서, 반면 서구의 탐험가 로빈슨 크루소는 中庸의 가르침에 얽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모험정신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칭송한다. 중국적 유가전통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했기에 로빈슨 크루소는 근대중국에서 중국유가의 성인에게 요구되었던 中庸의 가르침을 위반하고 모험에 나선 탐험가로 재창조되었다.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음의 속성을 지닌 중국인의 전통적 지혜는 비판받고 진취적 정신과 일맥상통하는 陽剛의 기개가 요구되었는데, 이를 통해 근대중국에 있어 전통적 요소가 당시의 시대적 요청에 의해 취사선택되는 양상을 확인 할 수 있다.

다음으로, 文을 숭상하고 工商을 천시해온 종래의 유가적 관념을 비판한다. 프랑스 작가 브루노의 작품 《愛國二童子傳(Le tour de la France par deux enfants, 두 어린이의 프랑스 일주)》은 프로이센-프랑스 전쟁에서 패한 후 프랑스의 두 명의 어린이가 프랑스 전국을 여행하면서 전국민이 모두 國恥를 깨달아 實業에 힘을 써 자강을 도모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안심하고 돌아와 그들도 실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이 소설작품으로 인해 프랑스의 실업이 부흥해졌다고 생각한 林紓는 이 작품을 번역하여 중국청년학생들이 실업에 힘쓰도록 유도하고자 했다.

“브루노는 천하의 첫째가는 仁人이다. 그 사람은 철학자로 칭할 필요는 없으나 소박하고 성실하여 이와 같은 실업소설을 창작했다. 당시 프랑스 사람들이 이것을 읽고 사람들 마다 모두 고무되었다. 그것은 학계뿐만 아니라 상업계에도 이익이 되었으며 결국엔 정계도 그 혜택을 크게 입었다.”<sup>42)</sup>

그는 자신의 번역사업도 나라를 구하는 ‘實業’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실업을 위한 모범적 실천행위의 하나로 선전했다.<sup>43)</sup> 《愛國二童子傳》達旨

41) “不求有功, 但求無過者也.” 《魯濱孫漂流記》序

42) “沛那者, 天下之第一仁人也. 其人不必以哲學稱, 但能樸實誠懇, 爲此實業之小說. 當時法人讀此, 人人鼓舞, 既益學界, 又益商界, 歸本則政界亦大被其益.” 《愛國二童子傳》達旨, 《晚清文學叢鈔》卷三에서 인용.

에 보면 林紓가 당시 중국은 오로지 관직에 나가 출세하는 것만 중시하고 실업을 末業이라 천시하는 풍조와 서양 국가들이 실업을 중시하여 국가가 강성해진 상황을 대비함으로써 중국민족의 의식의 각성을 이끌어내고자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양 사람들의 실업은 학문으로써 생산해내는데, 우리나라의 實業은 무지한 촌사람에게 맡겨 버리고 그 사람과 그 일을 천한 일로 삼으니 이는 성 담을 높이 쌓고 병력을 충분히 준비해놓고도 한 절기 동안 먹을 양식을 처음부터 비축해놓지 않은 것과 같으니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실업이란 것은 강국이 양식을 비축하는 것과 같아 이것을 급하다고 여기지 않고 급하지 않은 것을 급하다고 여기면 목전의 통치는 칠혹같이 검디는 것을 알아야 한다. …… 지금 학당이 거의 열여덟 省에 퍼져있는데 상업학당은 몇 개나 되는가? 농업학당은 몇 개인가? 의학학당은 몇 개인가? 조정에서 인재를 선발함에 法政을 배우지 않은 자는 일등이 될 수 없으니 실업을 賤品으로 여기고 있음이다. 중국의 고질적인 습관으로 사람들이 관직을 얻는 것만을 귀하게 여겨 풍조를 따라 쫓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 이것이 畏廬가 피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면서 이해할 수 없는 바이다.”<sup>44)</sup>

또한 탐정소설을 번역해 들여오면서 그는 서양사회와 비교해봤을 때 중국의 법률체계가 완비되지 못한 점을 지적한다. 특히 당시 중국은 소송사건을 해결함에 있어 그 효율성과 기능이 서구보다 현격히 낙후했다. 그 원인 진단으로 임서는 《神樞鬼藏錄(Chronicles of Martin Hewitt, 마틴 휴이트)》序에서 말하길, 그것은 중국의 관료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형벌을 제멋대로 적용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을 위해 변호해 줄

43) 《林紓評傳》，p.91 요약.

44) “西人之實業，以學問出之，吾國之實業，付之無知無識之儉荒，且目其人其事爲賤役，此大類高築城垣，厚儲兵甲，而糧儲一節，初不籌及，又復奚濟？須知實業者，強國之糧儲也，不此之急，而以緩者爲急，眼前之理，黑若黝漆矣。 …… 今日學堂幾徧十八行省，試問商業學堂有幾也？農業學堂有幾也？醫學學堂有幾也？朝廷之取士，非學法政者，不能第上上，則已視實業爲賤品。中國結習，人非得官不貴，不能不隨風氣而趨。 …… 此畏廬所泣血椎心不可解者也。”《愛國二童子傳》 達旨

변호사가 없고 공정한 수사를 해주는 검찰제도가 완비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sup>45)</sup> 때문에 백성들은 무고하게 연루되어 죽게 되고 사건은 더욱 미궁에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사법제도의 불안전함에 대한 지적을 통해 그의 인권을 옹호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다. 그는 탐정소설을 전국에 보급시켜 사법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여 사법제도에 필요한 변호사 인재를 대거 양성해 백성들의 억울함을 대변해주길 희망했다. 결국은 중국의 법률을 정비하여 專制사회에서 법제사회로 나아가는데 탐정소설이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 밖에, 임서의 번역소설은 근대중국인의 서양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있어 큰 계기를 제공해주었다. 晚淸時期 중국인들은 문학 분야에서 갖는 자긍심이 대단하였다. 그들은 과학 분야에 있어서는 서양보다 못함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했으나, 문학은 민족우월감의 근거로 삼았기에 서양의 작품과 작가에 대한 태도에는 우월감이 내재해 있었다. 그들의 문화적 자긍심은 매우 견고해서 좀처럼 타파되지 않았다. 이러한 와중에 《巴黎茶花女遺事》가 번역되어 중국 지식인들의 서양인에 대한 인식, 그리고 서양소설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徐維는 1899年 《東西學書錄》에서 《巴黎茶花女遺事》와 중국소설을 비교하여 말하길, “林紓는 프랑스 名妓 마르그리트의 이야기를 번역하였는데 그 감동과 진실함이 《紅樓夢》과 같도다.”<sup>46)</sup> 包天笑 역시 자신이 번역소설을 시작할 당시를 회고하면서 말하길, “(林紓의 번역본은 - 필자 주) 세상을 흔들어놓았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길, 외국인도 사랑의 전일함이

45) “中國之鞠獄所以遠遜於歐西者，弊不在於貪黷而濫刑，求民隱於三木之下，弊在無律師爲之辯護，無包探爲之調偵。每有疑獄，動致牽綴無辜，至於瘐死，而獄仍不決。……近年讀海上諸君子所譯包探諸案，則大喜，驚贊其用心之仁。果使此書風行，俾朝之司刑讞者，知變計而用律師包探，且廣立學堂以毓律師包探之材，則人人將求致其名譽，既享名譽，又多得錢，孰則甘爲不肖者！下民既訟師及隸役之患，或重視清明之天日，則小說之功寧不偉哉！”林紓，《神樞鬼藏錄》序. 기자출신인 영국작가 아서 모리슨 Arthur Morrison(1863~1945년) 이 변호사 출신의 명탐정 마틴 휴위트를 탄생시킨 작품이다.

46) “林紓譯記法國名妓馬格尼事，刻摯可埒《紅樓夢》。”

이와 같은가? 외국인은 모두 박정하다고 생각해왔다. 사람들은 이 번역본을 일러 ‘외국 홍루몽’이라 불렀다.”<sup>47)</sup> 英敏之<sup>48)</sup>는 하룻밤만에 이 소설을 다 읽고 난후 1901년 일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등불 아래서 《茶花女》이야기를 읽고서 슬픈 감정이 일어나 여러 가지 잡념이 사라졌다. 서양인들도 이렇게 섬세할 줄은 생각지 못했다.”<sup>49)</sup> 《巴黎茶花女遺事》의 출간으로 인해 중국 지식인들은 서양에도 중국의 《紅樓夢》에 비견할 수 있는 작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 밖에도, 고급 창녀 마르그리트와 아르망의 사랑을 그린 이 소설은 서양의 자유와 평등 등의 근대적 개념을 소개하는데 일정정도 기여했다.

## 2. 尙武정신과 冒險정신의 고취

임서는 서양의 모험소설을 다수 번역했는데, 그것을 번역한 이유는 단지 새롭고 기이한 사건들로 독자들의 이목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중국인들로 하여금 상무정신과 탐험정신을 고취시키고자 함에 있었다. 그것은 곧 서구열강의 침략에 맞서 중국의 자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필요한 정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907년에 쓴 《劍底鴛鴦》의 序에서 말하길, “내가 학문이 부족하여 책을 지어 우리나라 사람을 면려하지 못함을 애석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서양에서 나온 영웅의 전기를 많이 번역하여 우리 인종으로 하여금 지쳐 무기력해져 있는 습성을 제거하여 용맹한 적의 뒤를 쫓아가게 한다면 우려하는 근심을 이로써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겠다.”<sup>50)</sup>

47) “哄動一時. 有人謂外國人亦有用情之專如此的嗎? 以爲外國人都是薄情的, 于是乃有人稱之爲‘外國紅樓夢’.”

48) 英敏之(1867~1926年)은 청말시기의 저명한 천주교 인사로서, 중국인에게 새로운 사상을 전파하고 사회를 개량하기 위해 1901년 천진에서 신문 《大公報》를 창간했다.

49) “燈下閱《茶花女》事, 有摧魂憾魄之情, 萬念灰靡, 不意西籍有如此之細膩.”

50) “恨余無學, 不能著書以勉我國人, 則但有多譯西產英雄之外傳, 俾吾種亦去其倦敝

이처럼 임서는 尙武精神을 고취시켜야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十字軍英雄記(The Talisman, 부적(符籍))》<sup>51)</sup>, 《撒克遜劫後英雄略(Ivanhoe, 아이반호)》<sup>52)</sup>, 《劍底鴛鴦(The Betrothed, 약혼자)》<sup>53)</sup> 등을 번역했다. 특히 해거드의 모험소설을 많이 번역했는데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 《埃司蘭情俠傳(Eric Brighteyes, 에릭 브라이트아이즈)》<sup>54)</sup>, 《斐州煙水愁城錄(Allan Quatermain, 알렌 쿼터메인)》<sup>55)</sup>, 《霧中人(The People of the Mist, 안개 속의 사람)》<sup>56)</sup>, 《鍾乳驪體(King Solomon's Mines, 킹 솔로몬의 보물)》<sup>57)</sup> 등이 있다. 서양의 모험소설은 18세기 상업혁명시대의 산물로 해외식민지 시장을 개척했던 역사의 기록이다. 해거드의 모험소설은 바로 이시기 자본가 계층이 개성과 자유를 추구하고 경제적 이익을 용감히 추구하는 진취적 정신을 대표하고 있다. 그 중 《霧中人》은 백인의 아프리카 탐험 이야기를 그린 것으로 역병을 이겨내고 사막을 넘고 “천尋<sup>58)</sup>의 봉우리를 건너고 만년설을 건너서 수많은 어려움을 딛고서 수백년 된 요괴와 악어의 위협과 백인이나 되는 연못에 임해서도 구사일생하여 조금도 후회하는 바가 없는”<sup>59)</sup> 정신을 그리고 있다.

《埃司蘭情俠傳》은 아이슬랜드에 살던 에릭이 모험정신을 발휘하여 그린란드를 정복하여 식민지 경영에 성공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임서는 이 작품의 序에서 에릭 일파 역시 본래 개화되지 않은 민족이었으나 그들이 식민지를 개척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도적질과 俠의 정신에

之習, 追躡於猛敵之後, 老懷其以此少慰乎!” 《劍底鴛鴦》序, 《晚清文學叢鈔》卷三에서 인용.

51) 영국작가 스콧(Scott, Walter, 1771~1832)의 1825년 작, 1907년 번역.

52) 영국작가 스콧(Scott, Walter, 1771~1832)의 1820년 작, 1905년 번역.

53) 영국작가 스콧의 1825년 작, 1907년 번역.

54) 영국작가 해거드(H. Rider Haggard)의 1891년 작, 1903년 번역.

55) 1887년 작품으로 1905년에 번역.

56) 1894년 작품으로 1906년에 번역.

57) 1885년 작품으로 1908년에 번역.

58) 尋은 길이 단위로 8尺에 해당.

59) “跨千尋之峰, 踏萬年之雪, 冒衆矢之叢, 犯數百年妖鱗之吻, 臨百仞之淵, 九死一生, 一無所悔.” 《霧中人》序

있었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이 책에 기록된 사건은 대부분 싸우고 약탈하는 것으로 문명의 길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택하여 번역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말이 기개가 있고 남에게 굴복하지 않으며, 비록 피를 토하고 죽어도 불쌍하게 여겨지길 바라지 않았다. 오호! 이것은 우리 민족의 무기력함을 바로잡기에 충분하다! …… 내가 그것을 택하여 번역한 이유는 특별히 그 무사적 기개를 중시하여 우리 민족의 쇠약함과 무기력함을 바로잡아 스스로 용감함에 힘쓰기를 바랐기 때문이다.”<sup>60)</sup>

아이슬랜드 국민의 무사적 기개를 칭송하면서, 그들의 상무정신이 잘 나타난 이 작품을 읽고서 중국인들이 무기력함에서 뛰어나와 용맹해지기를 바라는 번역자의 고심을 엿볼 수 있다. 유가의 훈도를 받은 임서가 보기에, 이 작품에 등장하는 남녀 간의 애정사건은 매우 기괴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는 “진실로 다만 그俠를 취함에 있었다.”<sup>61)</sup> 그런데 서양소설을 가져와 강조했던 무사적 기개는 사실 서양의 것이 아니라 중국의 전통, 그것은 유교적 주류전통이 아닌 비주류 전통의 한 요소였다. 서구의 새로운 세계에 대한 모험심과 탐구를 바탕으로 하는 모험소설은 중국의 義俠영웅의 이미지와 겹침으로써 무사적 기개가 부각되었던 것이다. 중국전통에서 義俠이라는 개념은 약소계층인 민중을 위해 지배계층에 반기를 들며 무력을 행사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는 영웅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서구의 모험소설에 등장하는 모험가 에릭 등은 신대륙을 찾아서 모험을 떠나고 개척한 땅을 전유하려는 제국주의적 욕망을 내재한 인물이다. 서구인들의 정복과 약탈이라는 제국주의적 욕망을 내재화한 서구중심적 모험소설은 임서가 만들어낸 재해석으로 인해 원

60) “言論氣概，無一甘屈於人，雖喋血伏屍，匪所甚恤，嗟夫！此足救吾種之疲矣！顧余之取而譯之，亦特重其武概，冀以救吾種人之衰德，而自厲於勇敢而已。”《埃司蘭情俠傳》序

61) “實則吾意固但取其俠者也。”《埃司蘭情俠傳》序

본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의미가 은폐되었다. 결과적으로 독자는 임서가 행한 해석을 텍스트를 이해하는 유효한 창으로 간주하여 그의 해석이 자국의 문화적 조건들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모험소설에 보이는 약탈과 정탐 등의 행동은 유가적 전통지식인 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많은 모험소설을 번역한 이유는 중국이 오랜동안 文을 숭상한 나머지 유약한 나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상무정신을 고취시켜야한다는 필요성에서 출발했다. 따라서 상무와 모험정신을 강조하기 위해 번역자는 종종 작중 인물의 악행을 그 번역의도에 맞게 재창조해냈다. 임서가 번역한 《歇洛克奇案開場(A Study in Scarlet, 주홍색 연구)》<sup>62)</sup>를 교정한 바 있는 陳熙績가 말하길, 작품에서 복수를 행한 자는 와신상담의 월왕 구천에 비견할 수 있다고 하면서 복수의 마음을 끝까지 놓지 않은 점을 칭송했다. 비록 그는 두 명을 살해한 살인범이지만, 그 용기와 인내심은 정말 탄복할만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남자들로 하여금 모두 이처럼 인내하면서 끝까지 꺾이지 않게 한다면”<sup>63)</sup>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적 확장의 기세를 꺾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번역본 앞에 덧붙인 이러한 설명으로 인해 독자들은 복수를 감행한 자가 지닌 도덕적 결함(살인)에도 불구하고 그를 비난하거나 천시하지 않게 되었다.

이처럼 유교적 덕목과 위배되는 내용이 들어있는 소설일지라도 중국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크게 개의치 않았다. 이러한 임서의 번역자로서의 태도는 여타의 소설에서도 종종 보인다. 예를 들면, 디킨스가 《塊肉餘生述(The Personal History David Copperfield, 데이비드 코퍼필드)》와 《賊史(Oliver Twist, 올리버 트위스트)》 등에서 영국사회의 부조리와 하층민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묘사함과 동시에 유머를 섞어

62) 코난 도일이 설록 홈즈를 주인공으로 한 최초의 작품(1887년)이자 장편소설이다.

63) “使吾國男子，人人皆如是堅忍沈摯，百折不撓，則何事不可成，何侮之足慮？” 陳熙績，〈歇洛克奇案開場〉 敍

비판한 것을 그대로 번역한 것과, 《魯濱孫漂流記(The Life and Strange Surprising Adventures of Robinson Crusoe, 로빈슨 크루소의 생애와 이상하고 놀라운 모험)》에서 로빈슨크루소가 기독교적 신의 힘에 의지하여 무인도에서 고난을 극복하는 장면, 그리고 헤거드의 애정소설 《迦茵小傳(Joan Haste)》에서 여주인공 조안이 애인 헨리와 사랑하여 혼전임신을 하게 되는 대목과 헨리가 부모님의 명령을 어기고 조안과 사랑하는 대목 등을 삭제하지 않고 모두 번역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내용은 설령 유교적 관념과 상충하는 것이었으나 그를 통해 부패하고 무지한 중국을 개혁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에 번역대상의 범위 안으로 흡수될 수 있었다.

### 3. 애국심 고취

1900년 경자사변이 일어난 직후 중국민족의 위기의식은 한층 고조됨에 따라 林紓는 번역을 통해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고자 했다. 1901년 林紓는 미국 흑인 노예의 비참한 생활을 묘사한 작품 *Uncle Tom's cabin*<sup>64)</sup>을 《黑奴籲天錄(툼아저씨의 오두막집)》이라는 제목으로 출간했다. 미국 농장주의 학대를 받는 흑인노예 이야기를 읽고 그는 미국에서 중국인 노동자도 똑같이 학대받는 것을 연상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중 흑인노예의 비참한 상황을 여러 번 서술하고 있는데, 슬픔을 서술하는데 (일부러) 공을 들이지 않았으나 원서에 기록해 놓은 부분이 황인종이 망해가는 상황을 건드려 그로인해 그 슬픔이 훨씬 심해졌다.”<sup>65)</sup>

그는 이 작품의 跋文에서 그것을 번역한 의도는 황인종(즉 중국)의 멸

64) 미국 스토우(H. B. Stowe, 1811~1896) 부인의 1852년 작품.

65) “其中累述黑奴慘狀，非巧於敘悲，亦就其原書所著錄者，觸黃種之將亡，因而愈生其悲懷耳。”《黑奴籲天錄》序.

망을 우려하여 중국민족의 애국심을 환기시키려 했다고 밝히고 있다.

“나와 魏君이 함께 이 책을 번역함에 결코 비극을 서술함으로써 독자들의 끝없는 눈물을 자아내려는데 공을 들인 것이 아니다. 특히 노예가 되는 추세가 우리종족에게 미치고 있으니 대중을 위해 큰 소리로 부르짖지 않을 수 없어서였다.”<sup>66)</sup>

그의 이러한 의도는 과연 중국민족의 애국심을 고취하기에 충분했다. 署名이 靈石라는 독자는 《黑奴籲天錄》을 읽고 난 후 이 작품은 국가존망의 위기에 황인종(즉 중국인)의 민족적 애국심을 고취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라 생각하고 집집마다 한 권씩 꽂아두길 권했다.

“(책을) 거드랑이에 끼고 등 아래로 가서 읽으니 눈물이 줄줄 흘러 고개를 들 수 없었다. 허약한 몸이 어느새 정신이 번쩍 들었고 읽으면서 울고 울면서 또 읽기를 하여三更이 되어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 내가 《籲天錄》을 읽으면서 흑인노예의 눈물에 울고 우리 황인종을 위해 울었고 흑인 노예의 과거의 처지로 우리 황인종의 현재를 울었다. 나는 황인종 집집마다 《籲天錄》을 배치해 놓기를 바란다. 《籲天錄》를 읽는 자는 모두 자녀들의 슬픈 울음을 일으키고, 영웅의 뜨거운 눈물을 흘리길 바란다. 書場<sup>67)</sup> 혹은 茶肆를 경영하거나 소설을 상연해서 생계를 꾸리는 자들 역시 이 책을 받들어 평생의 장기(특기)를 다해 그 고생의 정황과 참혹한 수단을 묘사하여 우리 국민을 각성시키길 바란다.”<sup>68)</sup>

66) “余與魏君同譯是書，非巧於敘悲以博閱者無端之眼淚，特爲奴之勢逼及吾種，不能不爲大眾一號。”《黑奴籲天錄》二跋。

67) 전통 중국사회에서 사람을 모아 놓고 만담, 야담, 재담을 들려주던 장소.

68) “挾歸於燈下讀之，涕淚洶瀾，不可仰視，孱弱之軀，不覺精神爲之一振，且讀且泣，且泣且讀，窮三鼓不能成寐。……我讀《籲天錄》，以哭黑人之淚哭我黃人，以黑人已往之境，哭我黃人之現在，我欲黃人家家置一《籲天錄》。我願讀《籲天錄》者，人人發兒女之悲啼，灑英雄之熱淚。我願書場茶肆演小說以謀生者，亦奉此《籲天錄》，竭其平生之長，以摹繪其酸楚之情狀，殘酷之手段，以喚醒我國民。”靈石，〈讀《黑奴籲天錄》〉，《晚清文學叢鈔》卷三에서 인용。

또한, 무지한 중국인들에게 서양 국가들의 제국주의적 이데올로기를 설명하여 민족주의적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古鬼遺金記(The Spirit of Bambatse, 밤바체의 정신)》<sup>69)</sup>의 序에서 서양 국가는 식민주의 책략 하에 탐험정신을 발휘하여 약소국을 침탈하고 있으나 중국인은 그것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그들에게 순순히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일을 상세히 알면 인종의 탐험 정신을 복돋을 수 있는데, 그 모범이 바로 로빈슨 크루소와 콜럼버스이다. 오호! 백인종은 아득히 먼 곳에서 (물질적인) 이익을 얻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각오하면서 그것을 얻어내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고유한 이익을 내버리고 그것을 남에게拱手하면서 넘겨준다. 객으로써 주인을 능멸하게 하며, 사역 중국인으로 하여금 인구도 얼마 안 되는 백인종의 지배를 받게 하니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가!”<sup>70)</sup>

마찬가지로, 《霧中人》의 서문에서도 중국 청년들은 서양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주의 계략을 알고 철저한 방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백인이 아프리카를 잠식하는 것을 번역서에서 여러 번 드러내는데 (이는) 야만에 대해 이야기하길 좋아해서가 아니다. 백인종이 아프리카 대륙을 삼킬 수 있다는 것은 즉 중국과 아시아를 삼킬 수 있다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 이것은 바로 내가 말한 도적이 배우는 바를 배운다는 것으로, (그것은) 도적이 되려는 것이 아니고 다만 도적을 방비하면 도적의 세력이 꺾이게 된다. 내 책을 읽는 청년 애국 학생들에게 정중하게 알리니, 畏廬居士가 이 책을 번역하는 것은 결코 네오날드가 (미국)인디언을 획득

69) 혹은 *Benita: an African Romance* 이다. 해거드의 1906년 작품으로 1912년에 번역되었다.

70) “寧悉有其事，亦鼓勵種人探險之思，藍本均出諸魯濱生及哥倫布二氏也。嗚呼！白種人於荒外難可必得之利，尙輕百死而求之，吾族乃舍其固有之利，拱手授人，且以客凌主，舉四萬萬之衆受約於白種人少數之範圍中，何其醜也！” 《古鬼遺金記》序

함을 부러워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국이 약탈과 종족을 멸하는 도적들을 엄중히 단속하고자 함에 있다.”<sup>71)</sup>

#### IV. 나가며

문화적 맥락에서 보자면, 번역은 자국문화에서 새로운 생명력을 얻어 재창조되는 과정이다. 晚淸時期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서양에 대한 이해가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특히 중국과 서양간의 습속과 사유방식의 차이에 대해서는 더욱 무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애국심이 깊은 유신파 지식인으로서 林紘는 서양소설의 ‘번역’을 통해 중국 국민의 시야를 넓히고 국민을 계몽하여 망해가는 나라를 구하고자 노력했다. 실제로 노신, 주작인, 주자청, 전종서, 광말약 등 民國時期의 대문호들은 모두 林譯小說을 애독했으며 林譯小說로부터 큰 영향을 받고 자랐다고 한다. 阿英은 《晚淸小說史》에서 소설사에서 갖는 林紘의 위치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개괄하고 있다. “그는 중국지식계급으로 하여금 외국문학을 접하게 하였으며 적지 않은 일류작가를 알게 했다. 그들로 하여금 외국문학에서 배워 본국문학의 발전을 촉진하게 했다.”<sup>72)</sup> 周作人也 1924년 12월 1일 《語絲》 第3期에 발표했던 《林琴南與羅振玉》라는 글에서 林紘에 대한 경의의 마음을 표했다. “그는 외국문학을 소개함에 있어 비록 반고와 사마천의 고문필법을 사용했으나 그 노력과 공적은 어느 사람에 못지않다. …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는 거의 모두 林譯小說 덕분에 외국에 소설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외국문학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었다. 나는 일찍이 그의 번역문을 모방한 적이 적지 않았다.”<sup>73)</sup> 이들의 평가를 종합해 볼 때 임서의

71) “其於白人蠶食斐洲，累累見之譯筆，非好語野蠻也。須知白人可以併吞斐洲，卽可以併吞中亞。……此卽吾所謂學盜之所學，不爲盜而但備盜，而盜力窮矣。敬告諸讀吾書者之青年摯愛學生，當知畏廬居士之翻此書，非羨黎恩那之得超瑛尼，正欲吾中國嚴防行劫及滅種者之盜也。”《霧中人》 敘

72) “他使中國知識階級，接近了外國文學，從而認識了不少的第一流作家，使他們從外國文學里去學習，以促進本國文學發展。”阿英，《晚淸小說史》

서양소설 번역은 파급력과 영향력에서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林紓의 번역기획은 중국전통과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중국전통의 유가적 소양을 바탕으로 서양소설을 번역하였다. 그 결과 서구의 근대적 가치는 중국적 전통의 틀 안에서 그것과의 사이에서 발견되는 유사성을 통하여 변형되었다. 이와 동시에 중국전통의 주류적 가치관과 규범은 국가가 당시에 필요로 했던 특수한 목적—自強과 救國에 부응하기 위해 조정되었다. 겸양과 인내 그리고 中庸之德 등을 미덕으로 삼고 文을 숭상했던 유가의 관념이 비판받고 비주류 전통이었던 상무정신과 모험정신이 강조되었다. 중국의 비주류적 전통에서 부강한 국가 건설에 유용한 것들을 뽑아내었다는 점에서 임서는 전통의 창조적 계승에 노력한 인물이다.

그런데 이러한 임서 본래의 번역기획은 그의 의도와는 사뭇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여 후대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한 베누티의 아래의 평가는 주목할 만하다.

“발전도상국가……에서는 어떤 번역이 보수적인 자국화 전략들— 다시 말해 도착 문화의 지배적 토착문화를 강화하는 전략들—을 수행하고 있는 듯이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패권적 가치들에 수정을 가져오는 것일 수 있다. 林紓가 행한 청조 황제를 위하여 수행한 중국화하는 번역은 오히려 청조 문화의 권위를 침식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sup>74)</sup>

뿐만 아니라, 중국의 현대문학사적 맥락에서 보았을 때도 임서의 서양소설번역은 예상 밖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서양소설에 그려진 온갖 악인과 악행들을 여과없이 그대로 번역함으로써 소설을 유희적 수단으로 간주하는 경향을 강화시켜 결국 민국이후 현실도피적 사랑이야기를 다룬 원앙

73) “他介紹外國文學，雖然用了班馬的古文。其努力與成績絕不在任何人之下。……老實說，我們幾乎都因了林譯才知道外國有小說，引起一點對於外國文學的興味，我個人還曾經很模倣過他的譯文。”

74) 로렌스 베누티 저, 《번역의 윤리(The Scandals of Translation)》 pp.322-323.

호접과 소설<sup>75)</sup>을 흥성케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사실 임서가 초래한 이러한 결과는 일찍이 1907년 한명의 유학자에게 의해 암시된 바 있다.

“그런데 임서는 스스로 번역본의 많음을 자랑하며 엄연히 소설가로 자명한다. 번역한 책들 중 절반은 사회의 온갖 악인을 그리고 있어 사회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책에서는 왕왕 「내 책을 읽는 자」운운하고, 그 어조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가! 심하도다, 그것은 가치 없구나!”<sup>76)</sup>

근대중국에서는 소설이 가진 사회개량적 기능만이 일방적으로 강조되고, 반면 소설이 갖는 오락성에 대한 인식과 문학예술에 대한 심미능력이 결여되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규범의 억압에서 벗어난 개인의 욕망과 탐험심의 질주를 그린 작품과 사회에서 일어난 각종 부패상을 상세히 묘사한 작품의 번역이 유행하자 그것은 오히려 자유분방함과 악함을 즐기는 인간의 심리와 맞물려 민국이후 오락적 기능을 강조하는 소설유파에게 이용되는 결과를 맞이하였다.

총체적으로 봤을 때, 林紓의 번역은 중국인의 좁은 시야를 확장시켜 5.4 시기의 중요 작가들이 서양을 처음으로 접촉하고 학습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뿐만 아니라 부패한 전제왕권 清朝를 멸망시키고 소설관념의 변화를 가져 오는데 간접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중국문화 및 문학에서 근대성 담론이 흥기할 수 있는 조건을 성숙시키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75) “이 소설들은 당시에 일어나고 있던 일련의 정치, 문화적 사건들 -서구화, 1911년 청조를 무너뜨린 신해혁명, 공화정부의 수립 등-로 인해 심히 불안해하고 있던 보수적 성향의 중국독자들에게 일종의 보상적 안도감을 제공해주었던 것이다.”(Link E.P., Jr, 1981, *Mandarin Ducks and Butterflies: Popular Fiction in Early Twentieth Century Chinese Cities*,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번역의 윤리》 p.313 재인용.

76) “而林氏則自詡譯本之富，儼然以小說家自命，而所譯諸書，半涉於牛鬼蛇神，於社會毫無裨益，而書中往往有「讀吾書者」云云，其口吻抑何矜張乃爾！甚矣，其無謂也！” 寅半生，〈三讀《迦因小傳》兩譯本書後〉

## &lt; 參考文獻 &gt;

- 郭延禮, 《中國近代翻譯文學概論》(漢口: 湖北教育出版社), 1998.
- 阿英, 《晚清小說史》(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0.
- 陳平原, 《陳平原小說史論集》(石家莊: 河北人民出版社), 1991.
- 陳平原, 夏曉虹 編, 《二十世紀中國小說理論資料》(第一卷)(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7.
- 張俊才, 《林紓評傳》(北京: 中華書局), 2007.
- 韓洪學, 《林譯小說研究》(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5.
- 許桂亭 選注, 《林紓文選》(北京: 百花文藝出版社), 2006.
- 薛綏之, 張俊才, 《林紓研究資料》(福州: 福建人民出版社), 1982.
- 楊聯芬, 《晚清至五四: 中國文學現代性的發生》(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3.
- 龔鵬程, 《近代思潮與人物》(北京: 中華書局), 2007.
- 로렌스 베누티 저, 《번역의 윤리(The Scandals of Translation)》(서울: 열린책들), 2006.
- 수잔바스넷 저, 김지원·이근희 옮김, 《번역학 이론과 실제》(서울: 한신문화사), 2004.
- 이보경, 《文과 노벨의 결혼: 근대중국의 소설이론 재편》(서울: 문학과지성사), 2002.
- 오순방, 《中國 近代의 小說翻譯과 中韓小說의 雙方向 翻譯 研究》(서울: 승실대출판부), 2008.
- 張琬渝, 吳嘉馨, 張澄清, 南華大學出版所, <西學東漸: 晚清出版特性與近代華文思維模式形成>, 《網路社會學通訊期刊》第22期, 2002.03.
- 袁進, <近代偵探小說的高潮從何而來>, 《清末小說》第28號, 2005.12.
- 樽本照雄, 《林琴南冤獄—林譯莎士比亞和易卜生》, <http://www.biwa.ne.jp/~tarumoto/2007tarumoto.pdf>
- <以“林譯小說”爲中心論林紓在文學轉型過程中的兩難抉擇>, 《中國近代文學

學會第十二屆年會暨翻譯文學與中國文學近代化學術研討會論文集》，  
2004.<http://cla.shu.edu.cn/deptMess/jdwx/2005-11/20051130230049.htm>

심형철, <林紓 小說論 小考>, 《中國文學》제25권 1기, 1996.

WanLong Gao, *Recasting Lin Shu A Cultural Approach to Literary Translation*, Griffith University, 2003.03.

Tsuen-hsuei Tsien, *Western Impact on China Through Translation*, *The Far Eastern Quarterly* 13:3, 1954.05.

### <中文提要>

在西学东渐过程当中，书籍是中国人认识西方的工具之一，通过阅读译本来认识、了解西方。在引进西方文化上，1900年以来，由于中日战争失败之后，中国近代知识分子对清朝失望至极，出现了显著的变化。在翻译西书的种类方面，从兵工技术的物质文化转而以思想、学术等精神文化为主，也就是由器物层次、制度层次，而至精神层次。随着这些变化，西方小说的翻译应运而生。晚清时期，在翻译西方小说上，‘林纾’这人物实可推为最著名的翻译家。

本文主要着眼于林纾的翻译对中国现代性进程所起到的积极与间接的作用。他基本上受梁启超的‘小说界革命’思想，用翻译西方小说以改造中国社会。他的译书，浓厚着鼓吹爱国热情，启蒙愚昧的中国人的意图。与此同时，他又表现了内心的两难抉择的困境，一方面以输入西方概念与思想求新、求变，另一方面，由于长期受中国传统文化的熏陶，又坚守着中国传统观念与意识。由此，在林译小说中不难发现站在中国儒家传统文化的角度上了解西方的痕迹。

주제어 : 林纾, 林译小说, 翻译意图, 爱国, 启蒙